

지역공동체에서의 원불교의 역할

—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

김 봉 곤*

목 차

I. 머리말	IV. 도시교당 사례 - 영광교당
II. 원불교의 낙원세상 건설과 무아봉공	V. 농촌교당 사례 - 영산교당, 신흥교당
III. 원불교 교회조직과 영광교구	VI. 맺음말

국문초록

원불교는 1935년 소태산 박중빈이 ‘조선불교혁신론’에서 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표방한 이후, 시대 상황과 민중들의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교리의 실천내용이 변천을 거듭하였다. 원불교는 1924년 창건 당시 이미 낮에는 토지를 개척하여 생활의 근원을 삼고, 밤에는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여 지식의 근원을 삼는다는 무산자의 종교를 표방하였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나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1차 산업인 농업이었기 때문에 원불교 교당은 농촌에 많이 분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식료품·섬유·의복·제지업 등의 경공업에서 석유, 제철, 기계, 자동차 등의 중공업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컴퓨터, 반도체, 정보·통신, 서비스업,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어 전체인구의 5% 미만으로 줄어들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 원불교 역시 이러한 인구추세를 반영하여 도시 교당이 농촌교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식량 생산의 원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 영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연구교수

논문접수일 : 2022. 5. 09. 논문심사일 : 2022. 5. 20. 게재확정일 : 2022. 6. 14.

도 결코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원불교 역시 ‘제생의세(濟生醫世)’를 통해 모두가 낙원세상에 사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의 교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원불교의 주요 교리인 사은사요와 무아봉공의 개념이 어떻게 낙원세상 건설로 연결되며, 지역 공동체에서 원불교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영광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에서도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요양원을 통해 건강한 영성(靈性)의 회복을 꾀하며, 유기농이나 탈핵운동 등 생명평화 운동의 구현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담당 교무의 장기근속과 높은 사명감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주제어 : 원불교 영광지역, 낙원세상, 사은사요, 무아봉공, 영성의 회복,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원, 탈핵운동, 생명평화운동

I. 머리말

원불교는 1924년 개교 이래 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표방하였는데,¹⁾ 시대 상황과 민중들의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교리의 실천내용이 변천을 거듭하였다. 원불교는 1924년 창건 당시 이미 낮에는 토지를 개척하여 생활의 근원을 삼고, 밤에는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여 지식의 근원을 삼는다는 무산자의 종교를 표방하였다. 이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나 1950년대까지는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 1차 산업인 농업이었기 때문에 원불교 교당은 농촌에 많이 분포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빈곤에서 탈피하기 위해 경제개발 계획을 실시하면서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수많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식료품·섬유·의복·제지업 등의 경공업에서 석유, 제철, 기계, 자동차 등의 중공업으로 발전하였고, 1990년대 이후로는 컴퓨터, 반도체, 정보, 통신, 서비스업, 첨단산업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어 2020년 12월 현재 농촌인구는 231만 4천명²⁾으로 전체 인구의 4.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인구구성상 42.3%나 되며, 농가 경영주의 평균연령도 66.1세에 달한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원불교에서도 도시 교

1) 원불교의 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는 1935년 소태산 박중빈이 지은 ‘조선불교혁신론’에서 잘 드러난다.

2) 통계청, 「2020 농림어업 총조사」, 2020년 12월 28일.

당이 농촌교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다.³⁾

그러나 농촌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식량 생산의 원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결코 농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원불교 역시 제생의세를 통해 모두가 낙원세상에 사는 것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에 처한 농촌지역의 교화를 포기할 수는 없다.⁴⁾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여 원불교의 주요 교리인 사은사요와 무아봉공의 개념이 어떻게 낙원세상 건설로 연결되며, 지역 공동체에서 원불교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영광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원불교의 지역공동체, 특히 농촌지역에서의 역할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원불교의 낙원세상 건설과 무아봉공

원불교는 일원상의 낙원세상을 건설을 목표로 하며, 그 실천의 대법으로 사은사요(四恩四要)를 제시하고 있다. 1929년 10월 『월말통신』에 따르면 소태산 박중빈이 대소유무와 시비이해를 해부하여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피은(被恩), 보은(報恩), 배은(背恩)의 법을 알려 주었고, 사요의 대법을 하교(下敎)하니 인도정의에 입각한 도덕풍이 불고, 대아(大我)의 본연의 세계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⁵⁾ 사요의 대법은 부부권리동일(夫婦權利同一), 지우차별(智愚差別), 무자녀 타자녀교양(無子女 他子女敎養), 무자력자 보호(無自力者保護)이다. 그 중 지우차별은 유무식차별로 할 경우 지식만 의미하고 실행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경하였다는 사실을 부기하였다.

이러한 사은사요의 제정은 사은사요를 통해 병든 세상을 낙원세상으로 바꿈에 있고, 그 묘책은 원수를 은혜로 바꾸는 데 있었다.

나는 진즉부터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만들어서 고해 중생들로 하여금 안락한 생활을 하게 하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따

3) 원불교 교당은 시, 읍 단위의 도시교당과 면단위 소재 농촌교당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3년 현재 도시교당이 297개소, 농촌교당이 116개소로 도시교당이 농촌교당의 2.56배에 달한다(정천경, 「원불교 농촌교화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원불교와 농촌교화-원불교 농촌교화 자료집』, 원광사, 1997, 82쪽).

4) 원불교교화부/편저 정천경, 『원불교와 농촌교화-원불교 농촌교화 자료집』, 원광사, 1997.

5) 『월말통신』 제20호(1929.10), 「교법제정안」.

라서 백방으로 연구한 결과에 천우신조하야 한 묘한 화제(和劑)를 얻었나니 그것은 별것이 아니라 곧 원수를 은혜로 박귀버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별안간에 무조건하고 원수로 모든 것을 은혜로 보라 한다면 아모라도 실행할 수가 없겠으므로 나는 먼저 모든 은혜의 근본 시조되는 사은 즉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을 제창하고 이어서 피은, 보은, 배은의 조목과 결과까지 자상히 밝히려 놓았나니⁶⁾

라고 하여 병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원수를 은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원수를 은혜로 곧바로 바꿀 수 없으므로, 은혜의 근본이 되는 사은, 즉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을 잘 배워서 보은하는 도를 행하자고 한 것이다. 이에 소태산은 천지는 응용할 때 대가를 바라거나 사념을 품지 않는 덕이 있고, 부모는 내가 무력하였을 때 키워주신 은혜가 있고, 동포는 자리이타, 법률은 시비를 가려주는 은혜가 있으니, 보은지도를 행하는 자가 많으면 세상이 평화하고 안락하여져서 원수로 보는 병이 없다고 주장하였다.⁷⁾

소태산은 사요를 제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병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남녀 간에 서로 자력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즉 의뢰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녀 권리 동일이라는 과목을 내어 남녀에게 교육도 같이 식히고 의무 책임도 같이 지우며 지위와 권리도 같이 주어서 피차에 의뢰심은 철폐식히고 자력을 장려하여 여자는 남자 아니라도 살만하고 남자는 여자 아니라도 살만한 힘을 얻게 함이요, 그 다음은 과거 불합리한 차별제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배우는 성심이 부족하였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우차별(智愚差別)이라는 과목을 내어 지내간 세상에 불공평하든 차별 제도는 철폐식히고 이제는 백정(白丁) 쟁인이라도 지식만 충분하고 보면 써주고 선생으로 대우하자는 말이니 이는 곧 누구에게든지 배우려는 성심을 권장하는 말이다. 그 다음은 내 자녀나 남의 자녀에게 국한을 터서 가르치는 성의가 부족하였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6) 『회보』 제26호(1936년 7월), 「사은사요의 필요」(手筆 李共珠),

7) 같은 글, “사은을 강령적으로 간단히 분석한다면 즉 천지에서는 응용무념지덕應用無念之德으로써 은혜가 되었고 부모에게서는 자력 없을 때 극진한 보호받는 결로써 은혜가 되었으며 동포에게서는 자리이타로써 은혜가 되었고 법률에서는 시비 가려 주난 것으로써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사은 편을 잘 배워서 그대로 보은지도報恩之道를 행하는 자가 생겨난다면 많이 생겨날수록 이 세상은 평화하고 안락하여져서 원수로 모든 병은 완치되고 말 것이다.”

무자녀자 타자녀 교양이라는 과목을 내어 자녀 없는 사람은 남의 자녀라도 힘 미치난 대로는 책임지고 가르쳐서 문맹을 퇴치시키는 동시에 영재를 많이 양성하자 함이니 이는 곳 가르치는 성심을 권장함이요, 그 다음은 모든 사람이 가정주의에 떠러져서 남의 도움은 종와하나 내가 남을 도와주기는 시려하난 머리에 공익사업을 하난 자가 회소하였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공도헌신자 이부사지(公道獻身者以父事之)라는 과목을 내어 어느 방면으로든지 남을 위하야 노력한 사람은 생전 사후를 부모와 같이 섬기여 주자 함이니 이는 곳 나를 희생하야 남을 유익주는 자선심(慈善心)을 장려함이니라.⁸⁾

의뢰병, 차별병, 안 가르치는 병, 협심병은 앞의 원망병과 함께 조선을 병들게 한 생각들이므로,⁹⁾ ‘남녀권리동일’ 과목을 내어 의뢰병을 낮게 하고, ‘지우차별’의 과목을 내어 지식만 충분하면 선생으로 대우하게 하여 차별병을 타파하고, ‘무자녀자 타자녀 교양’ 과목을 내어 남의 자녀라도 힘껏 가르치는 성심을 내게 하고, ‘공도자헌신자 이부사지(公道獻身者 以父事之)’ 과목을 내어 공도자를 섬겨서 남과 세계를 위하게 하여 이기주의의 협심병을 낮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사은사요는 모두가 낙원세상에 이르는 강령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상에 말한 바와 같이 사은으로써는 모든 원수를 풀어 버리고 은혜를 발견하며 사요로서는 자력생활, 배우난 성심, 가르치는 성의, 공익심 등을 권장하며 따라서 실제 실행들을 하여보라. 그런다면 이 세상은 결함없난 일원세계가 될것이요 사람들은 불보살로 변하야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노소가 극락 수용을 하게 될 것은 의심치 않노라.»하시더라.¹⁰⁾

소태산은 이러한 사은사요의 실천을 통해 앞으로 일원세계가 될 것이고, 사람들은 불보살로 변하여 남녀노소가 극락생활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다.

사요의 항목 중 ‘부부권리동일’은 후일 ‘남녀권리동일’을 거쳐 ‘자력양상’으로, ‘지우차별’은 ‘지자본위’로, ‘무자녀자 타자녀 교양’은 ‘타자녀교육’으로, ‘공도자헌신자 이부사지(公道獻身者 以父事之)’는 ‘공도자승배’로 바뀌어 원불교 경전인 『불교정전(佛敎正典)』 (1943년 간행)에 수록되었다. 소태산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차별을 타파하고 무아봉공의 의미가 더욱 강조된 것이다.

8) 같은 글.

9) 『大宗經選外錄』 濟生醫世章

10) 『회보』 제26호(1936년 7월), 「사은사요의 필요」(手筆 李共珠)

이와 같이 소태산에 의해서 제정된 사은사요는 시대를 거치면서 구체화되었다. 해방 후 국가건설, 1970년대 종교간의 협력과 세계평화의 추구, 1990년대 시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덕성의 항목이 되었다. 특히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와 대기 오염 등은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는 바, 천지와 부모, 동포, 법률은의 사은을 통해 우주적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에 필요한 시민적 덕성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¹¹⁾

이러한 일원상의 낙원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사은사요의 실천은 개인의 깨달음과 수행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원불교 교리도에 따르면 원불교는 진공묘유의 수행과 인과보응의 신앙을 통해 법신불 일원상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공묘유의 수행은 삼학팔조 수행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행하며(正覺正行), 어느 때 어느 일이든지 불법을 활용토록 하는 것(佛法活用)이며, 인과보응의 신앙은 사은(四恩)의 은혜를 알고 보답하는 (知恩報恩) 행위와 사요(四要)의 올바른 실천을 통해서 보은즉불공을 사심없이 극진하게 실천하는 무아봉공(無我奉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각정행과 불법활용, 지은보은의 강령은 무아봉공의 대승적인 실천차원의 강령으로 귀결되며, 원불교는 정신을 개벽하여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원불교는 개인수행과 대사회적 실천운동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민중들의 고달픔을 위로해주고 아픈 세상을 치유해주는 ‘제생의세(濟生醫世)’를 표방하고 있으며, 교화와 자선, 교육의 삼대목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다.¹²⁾ 2015년 기준, 교육기관으로는 교역자 양성기관 4개소, 대학교 3개소, 일반중,고등학교 7개소, 대안학교 8개소, 어린이집 118개소, 유치원 12개소, 지역아동

11) 김봉근, 「원불교의 政敎同心과 시민적 덕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4,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12) 원불교의 지역공동체 활동이나 봉공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고된다.

심대섭, 「원불교의 사회복지이념」, 『원불교사상』 9, 1986.

서운, 「원불교와 사회복지」, 『종교문화학보』 4,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07.

오세영, 『원불교 사회복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회복지삼동회, 2011.

오세영, 구형선, 「봉공회원들이 체험한 봉공활동의 의미 탐색」,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8,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오세영, 자원봉사와 무아봉공의 사상적 접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4,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정향옥, 「지역사회 종교활동의 역사와 전망연구 - 장흥지역 신종교(동학, 천도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80, 한국종교학회, 2020.

이원식, 「봉공의 역사와 의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8,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2021.

오세영, 「원불교 사회복지 이념의 재조명」, 『신종교연구』 32, 2015.

센터 19개소, 기타 교육시설 4개소 등에 이르며, 자선복지기관으로 아동, 청소년 복지관 18개소, 노인복지기관 95개소, 장애인복지기관 27개소, 지역사회복지기관 18개소, 부랑, 노숙인 복지기관 1개소, 다문화센터 4개소, 기타 복지기관 7개소를 운영하고 있다.¹³⁾

III. 원불교 교화조직과 영광교구

1. 원불교 교화조직

원불교의 지역공동체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불교의 교화조직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원불교는 1977년 3월 5일 교구제를 시행하였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현재 총 15개 교구 49지구 524교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교구별 교당수의 변화¹⁴⁾

교구 \ 년도	지구	교당수의 변화	
		2016	2021
강원교구	춘천, 강릉지구	20	20
경기인천교구	수원, 안양, 인천, 분당지구	44	43
경남교구	거창, 창원, 마산, 김해, 진주, 통영지구	43	43
광주전남교구	광주동부, 광주서부, 목포, 순천지구	49	49
군종교구		2	2
대구경북교구	대구, 안동, 포항지구	36	36
대전충남교구	대전, 강경, 천안지구	36	34
부산울산교구	부산, 동래, 대연, 서면, 울산지구	55	52
서울교구	강남, 잠실, 서울, 여의도, 종로, 원남, 화곡지구	64	63
영광교구	영광지구	15	15
전북교구	고창, 김제, 남원, 부안, 서전주, 임실, 전주, 정읍, 진안지구	93	90
제주교구	제주지구	16	16
중앙교구	군산지구, 남중지구, 이리지구	40	40
총부지할교구	산본병원, 원광대학교, 원광대병원, 정토회 교당	5	5
충북교구	청주지구	14	16
합계		2,534	2,529

13)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 『원불교100년총람』 (기관·교육/훈련/문화) 3권, 원불교출판사, 2017.

14) 원불교교화훈련부, 「원기106년 교화훈련부통계」.

이 가운데 중앙교구는 원불교 총부가 있는 익산을 중심으로 군산까지를 포괄한 원불교 교화의 중심센터이며, 총부직할교구는 산본병원, 원광대학교, 원광대병원, 정토회 교당 등 원불교의 이념과 교육, 자선 등을 실천하는 기관이며, 영광교구는 소태산 대종사의 탄생지이자 대각처인 곳이어서 특별관리를 위해 설치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교구중 전북교구 90개소, 서울교구 63개소, 부산, 울산 교구 52개소로 가장 많은 교당을 관할하고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원불교 교당수가 2016년 532개소에서 2021년 524개소로 8개소가 줄어들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오늘날 전반적인 종교인수의 감소와 함께 코로나와 같은 역병 때문에 최근 교당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상황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 영광교구의 영광지역에서의 역할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영광교구도 이러한 상황을 피해갈 수 없다. 먼저 영광교구는 영광군 12개, 함평군 3개 교당 등 총 15개 교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광읍에 있는 도양교당, 영광교당, 백수읍에 있는 영산교당, 백수교당 두 곳을 비롯하여 흥농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염산면, 법성면에 모두 교당이 설치되어 있다.

영광교구의 연혁을 살피면 영광지역은 소태산 박중빈이 1916년 4월 백수면 길룡리에서 대각을 이루고 제자들을 모아서 교화를 펼치기 시작한 지역으로 이미 1920년 3월 이동안 등의 활동에 의해서 묘량면 신흥마을에 수신조합이 조직되고, 1927년에는 신흥교당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설립된 영광지역 교당을 표를 통해 살펴보면 <표 2>와 같다.¹⁵⁾

<표 2> 영광지역 교당설립

연대	연도	교당	연원	위치	비고
1920년대	1918년	영산교당	영산	백수면 길룡리	
	1927년	신흥교당	영산	묘량면 신천리	
1930년대	1933년	왕촌교당	신흥	묘량면 삼각리	
	1934년	대마교당	영산	대마면 북평리	
	1937년	도양교당	영산	군서면 신하리	

15)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 「영광교구」, 『국내교구-서울, 영광, 전북』 (『원불교100년총람』 8권), 원불교출판사, 2017, 509쪽.

연대	연도	교당	연원	위치	비고
1950년대	1950년	불갑교당	도양	불갑면 안맹리	
	1953년	영광교당	도양	영광읍 무령리	
	1955년	군남교당	도양	군남면 포천리	
1960년대	1961년	백수교당	영산	백수읍 죽사리	
	1966년	문장교당	광주	함평 해보면 용산	
1970년대	1971년	법성교당	도양	법성면 법성리	
	1975년	군서교당	도양	군서면 마읍리	
	1975년	덕산교당	군남		
	1978년	함평교당	문장	함평읍 내교리	
1980년대	1980년	홍농교당	법성	홍농읍 칠곡리	
	1981년	신광교당	법성	신광면 월암리	
	1981년	염산교당	군남	염산면 봉남리	

이후 1933년에 신흥교당을 연원으로 왕촌교당, 1934년과 1937년에 영산교당을 연원으로 각각 대마교당, 도양교당이 설립되었고, 해방 이후 1950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도양과 영산, 군남, 문장, 법성 교당 등을 연원으로 영광지역에 12개 교당, 함평지역에 문장, 함평, 신광교당이 설립되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덕산교당은 설립된 후 얼마후 폐쇄되었고, 왕촌교당도 2003년 신흥교당에 통합됨으로써 현재 영광교구에는 15개 교당이 있다. 이들 교당의 종교인구현황은 교단측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5년 <표 3>과 같다.¹⁶⁾

교도수는 현재 교당에서 관리하는 교도와 관리가 되지 않는 교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교구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교도관리율이 30%에서 25%로 떨어지고 있다. 또한 각 교당별 추세에서도 군서, 대마, 영산교당 외에는 관리교도수가 30% 이하이며, 2010년에 비해 2015년의 관리비율이 세 교당 외에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들 관리교도는 교당에서 관리하는 교도라는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교당에 출석하는 인원은 이보다 적다.

16) 같은 책, 522-523쪽 표(종교인구현황) 참조. 다만, 95년의 경우 미관리교도수의 통계수치가 맞지 않으므로 교도수에서 관리교도수를 뺀 수치로 재조정함.

<표 3> 영광지역 원불교 원불교도인구(2014~2015) (단위 : 명)

교 당 명	2010년 종교인구				2015년 종교인구			
	교도수	미관리	관리	관리비율 (%)	교도수	미관리	관리	관리비율 (%)
군남	1,136	726	410	36.09	1,109	874	235	21.2
군서	501	226	275	54.89	502	195	307	61.16
대마	357	199	158	44.26	335	129	206	61.15
도양	551	272	279	50.64	537	375	162	30.17
신흥	836	617	219	26.2	735	609	126	17.14
백수	1,435	1,058	377	26.27	1,519	1,314	205	13.5
법성	592	87	505	85.3	674	515	159	23.6
불갑	447	313	134	29.98	418	293	125	29.9
염산	433	278	155	35.8	520	345	175	33.65
영광	3,486	3005	481	13.8	3,619	3,098	521	14.4
영산	1,117	741	376	33.66	965	350	615	63.73
홍농	254	181	73	28.74	267	241	26	9.74
함평	221	22	199	90.05	235	189	46	19.57
문장	350	270	80	22.86	349	269	80	22.92
신광	216	150	66	30.56	203	131	72	35.47
합계	11,932	8,145	3,787	31.74	11,987	8,927	3,060	25.53
평균	795.67	543	252.47		799.1	595.1	204.0	

영광지역을 기준으로 교도수가 많은 교당으로는 영광교당 > 백수교당 > 군남교당 > 영산교당 > 신흥교당 순이며, 홍농읍이나 함평읍과 같이 읍소재지에서도 원불교도수가 비교적 적다. 군남교당의 경우 면소재에 있는 교당으로서 교세가 있으며, 영산교당은 소태산의 대각처이자 교화를 일찍부터 펼쳤던 곳이고, 신흥교당 역시 불법연구회 창립 때부터 전무출신자를 많이 배출한 유서깊은 곳이라서 교도수가 많은 편이다. 영광교구는 원불교 근원성지인 영산성지를 수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특별교구로서 편제되어 있으며, 원불교의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이념에 따라 각종 교화와 자선, 교육의 삼대목표를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다. 다음은 영광군의 인구 분포에 따라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교육이나 복지정책을 펴 왔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영광지역의 경우도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영광은 3개 읍, 13개 면, 인구수는 51,947명(2022년 3월 현재)이며, 함평은 1개 읍, 8개면,

32,685명(2022년 3월 현재)이다. 영광의 세대수는 27,292세대로 1세대에 2명 미만이다. 또한 인구수 2만명 이상이 되어야 통상 읍으로 인정되는데, 영광은 영광읍이 21,842명(남자 10,746, 여자 11,096)으로 읍의 규모로 합당하다. 백수읍은 4,561명(남자 2,262, 여 2,299), 홍농읍 6,540명(남 3,438, 3,102)으로 기준치에 미달한다. 영광읍과 홍농읍, 백수읍의 인구수는 도합 32,943명이며, 나머지 19,004명은 법성면, 염산면, 군남면, 군서면, 묘량면, 대마면, 불갑면, 낙월면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¹⁷⁾

다음은 태어나서 7세까지의 인구수를 살펴보자. 아직 초등학교 입학 전의 상태이다.

<표 4> 0세~7세까지의 영광군 인구분포

지역 연령	영광	백수	홍농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법성	낙월	계
전체	21,842	4,561	6,540	1,711	1,736	1,345	2,272	2,342	3,911	5,114	573	51,947
0세	193	31	75	8	8	11	11	11	11	34	0	393
1세	244	27	75	13	19	20	10	16	24	45	4	497
2세	220	24	64	6	15	8	9	6	8	40	6	406
3세	181	16	64	10	11	6	10	8	14	27	2	349
4세	174	13	52	13	4	6	7	5	12	17	5	308
5세	199	14	48	5	6	5	3	6	14	20	2	322
6세	195	14	55	8	7	1	8	6	9	18	1	322
7세	202	9	40	4	8	2	4	1	8	18	1	297
계	1,608	148	473	67	78	59	62	59	100	219	21	2,894
읍면 비율	55.56	5.11	16.34	2.31	2.7	2.04	2.14	2.04	3.46	7.57	0.73	100(%)
자체 비율	7.36	2.26	7.23	3.92	4.49	4.39	2.73	2.52	2.56	4.28	3.66	5.57(%)

(비율은 100% 단위이며,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태어나서 7세까지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총 2,894명으로서 전체 인구 51,947명의 5.64%를 차지하고 있다. 읍면간의 비율은 영광읍이 1,608명으로 55.56%, 홍농읍이 473명으로 16.34%, 법성면이 219명으로 7.57%, 백수읍은 148명으로 5.11%, 염산은 100명으로 3.46%, 나머지 면은 2.5%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영광군 전체에서도 영

17) 인구통계는 영광군청(<https://www.yeonggwang.go.kr/main/>)/영광소개/인구현황, 「2022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현황」을 참조함. 이하도 마찬가지임.

광읍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 백수읍의 경우는 영광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11%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다.

자체 인구비율로 살펴보아도, 영광읍 7.36%, 홍농읍 7.23% 외에는 모두 2~5%의 낮은 비율이다. 영광읍이나 홍농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인구출산을 뿐만 아니라 외부 유입 또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8세부터 15세까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표 5> 8세~13세까지의 영광군 인구분포

지역 연령	영광	백수	홍농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법성	낙월	계
8세	183	11	31	7	5	2	9	2	18	23	4	295
9세	249	15	62	5	5	5	9	14	8	18	2	392
10세	226	11	46	7	3	2	12	3	18	29	1	358
11세	251	19	55	8	11	6	12	12	9	22	1	406
12세	240	12	47	6	4	2	8	9	19	23	3	373
13세	210	14	57	11	7	5	11	9	17	24	2	367
계	1,359	82	298	44	35	22	61	49	89	139	13	2,191
읍면 간	62.03	3.74	13.6	2.01	1.6	1	2.78	2.24	4.06	6.34	0.6	100(%)
자체	6.22	1.25	4.56	2.57	2.02	1.64	2.68	2.09	2.28	2.72	2.27	4.22(%)

초등학교 취학생인 8세부터 13세까지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총 2,191명으로서 전체 인구 51,947명의 4.22%를 차지하고 있다. 읍면간의 비율에서도 앞서 1~7세까지의 분포와 비슷하다. 영광읍이 전체 2,191명 중 1,359명으로 62.03%, 홍농읍이 13.6%, 백수읍은 3.74%에 불과하다. 백수읍은 법성의 6.34%, 염산의 4.06%보다 더 낮다. 기타 군남, 군서, 대마는 2%대, 묘량, 불갑은 1%대이다. 영광읍이 차지하는 비율이 3/5이 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홍농이나 어업이나 관광이 활발한 법성포, 염산 외에는 대부분 농촌지역이 3%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읍면 자체비율에서도 영광읍과 홍농읍이 각각 6.22%, 4.56%로서 다른 읍면의 경우 2% 이하인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것은 초등학교 입학이 영광읍이나 홍농읍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중학생 취학연도인 14세부터 16세까지의 상황을 분석해보자.

<표 6> 14세~16세까지의 영광군 인구분포

(단위 : 명)

지역 연령	영광	백수	홍농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법성	낙월	계
14세	268	17	58	6	9	7	18	12	15	36	2	448
15세	246	19	42	13	11	4	17	6	17	32	1	408
16세	222	21	40	5	7	3	20	4	16	28	1	367
계	736	57	140	24	27	14	55	22	48	96	4	1,223
읍면 간	60.18	4.66	11.45	1.96	2.21	1.14	4.5	1.8	3.92	7.85	0.33	100(%)
자체	3.37	1.25	2.14	1.4	1.56	1.04	2.42	0.94	1.23	1.88	0.7	2.36(%)

중학교 재학생인 14세부터 16세까지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총 1,223명으로서 전체 인구 51,947명의 2.36%이다. 읍면간의 비율은 영광읍이 448명으로 60.18%, 홍농 11.45%, 법성 7.85%, 백수 4.66%, 군서 4.5%, 염산 3.92순이며, 그 이하는 2% 전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비율은 앞서 8세부터 13까지와 큰 차이가 없으나, 군서면의 경우 4.5%로서 군서, 불갑, 묘량, 대마면의 두 배 이상 분포를 보이고 있다. 군서면에 중학생 인구가 많은 것은 군서면에 대안학교인 성지송학중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지송학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7> 성지송학중학교 학생현황((2022. 3. 2 기준)¹⁸⁾

(단위 : 명)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남 학 생	4	5	20	29
여 학 생	3	5	10	18
총인원수	7	10	30	47

군서면의 경우 대안중학교 학생 47명이 주소가 군서면으로 되어 있어서 14세부터 16세까지의 인구수가 다른 면보다 많은 것임을 알겠다. 참고로 성지송학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성지송학중학교(<https://sjsh.ms.jne.kr/>)/학교현황(2022.5.1현재) 참조. 이하 성지송학중학교 통계도 마찬가지로임.

<표 8> 성지송학중학교 지역별 분포 상황

(단위 : 명)

구분	광주	전남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울산	대구	전북	부산	경남	경북	강원	계
1학년	3	4	0	0	0	0	0	0	0	0	0	0	0	0	0	7
2학년	2	7	0	1	0	0	0	0	0	0	0	0	0	0	0	10
3학년	16	11	0	2	0	0	0	0	0	0	1	0	0	0	0	30
계	21	22	0	3	0	0	0	0	0	0	1	0	0	0	0	47

성지송학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광주 21명, 전남 22명, 경기 3, 전북 1명으로, 주로 광주 전남권 학생들이며, 경기 지역 이외 타도에서는 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성지송학중학교는 전남, 광주 교육의 대안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17세~19세까지의 영광군 인구분포

(단위 : 명)

지역 연령	영광	백수	홍농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법성	낙월	계
17세	216	23	43	9	5	10	15	12	16	40	0	389
18세	211	34	46	8	5	6	15	8	11	46	1	391
19세	227	35	60	11	7	7	14	7	13	34	2	417
계	654	92	149	28	17	23	44	27	40	120	3	1,197
읍면간 비율	54.64	7.69	12.45	2.34	1.42	1.92	3.68	2.26	3.34	10.03	0.25	100.02(%)
자체 비율	2.99	2.01	2.28	1.64	0.98	1.71	1.94	1.15	1.02	2.35	0.52	2.3(%)

<표 9>의 17세부터 19세까지의 영광군의 인구수는 1,197명으로 영광군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며, 14세부터 16세까지 인구수와 거의 비슷하다. 읍면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영광읍 54.64%, 홍농 12.45%, 법성 10.03%, 백수 7.65% 순이며, 해당 읍면 자체비율에서도 영광읍 2.99%, 법성 2.35%, 홍농 2.28%, 백수 2.01% 순으로, 여전히 영광읍에 과반수가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와 비교하면 홍농, 법성, 백수읍의 인구수가 늘어난 사실이 주목된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광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영광에는 2021년 3.5

기준으로 영광고등학교(15학급/290명), 영광공업고등학교(17학급/249명), 법성고등학교(10/115), 영광전자고등학교(4/35)등 학생들의 특성에 맞추어 진학할 수 있는 공립학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불교의 교육이념을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내 4대 명문고등학교인 해룡고등학교(24학급/509명)와 대안학교인 영산성지고등학교(6학급/42명)가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¹⁹⁾

영광지역 원불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영광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5곳이나 운영되고 있다. 원불교총람 2015년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중 영광이 5개소나 되고 있어서 영광지역에서의 지역 아동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표 10> 영광지역 지역아동센터²⁰⁾

지역아동센터 명칭	위치	설립연도	구성
느티나무	묘량면 영양리	2008.3.11.	센터장 1명, 사회복지사 1명, 프로그램강사 1명, 아동복지사 2명, 정원 29명
법성원광	법성면 법성리	2005.3.10.	센터장 1명, 생활복지사 2명, 정원 29명
불갑원광	불갑면 안맹리	2005.3.01.	센터장, 교사, 복지사 등, 정원 29명
민들레	백수읍 길룡리	2006.4.17.	센터장, 사회복지사 1명, 프로그램강사 1명, 아동복지사 2명, 정원 19명
초록 디딤돌	영광읍 백학리	2006.6.29.	센터장 1명, 정원 29명

지역 아동센터는 빈곤가정, 결손, 조손,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에 아동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놀이문화와 독서지도, 급식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돕고 있다. 또한 방학동안에는 지역아동센터를 종일 운영함으로써 어린 시절을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과 연계하여 원불교 교화의 기초를 형성하는 기반이 되어, 청, 장년 시절 건전한 직업과 지식습득, 지역 공동체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원동력이 된다.

19) 고등학교 통계자료는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https://yged.jne.go.kr/>)/기관소개/학교안내를 참조함.

20)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 「지역아동센터」, 『원불교100년총람』 3(기관·교육·훈련·문화), 원불교출판사, 2017, 706-739쪽.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반학교와 대안학교가 설치되어 있다. 일반계 학교인 해룡중학교는 맑고 밝고 훈훈한 인간 육성을 목표로 학습플래너 작성을 통한 자시주도의 학습능력을 신장하도록 하고 있고, 해룡고등학교에는 참되고 슬기로운 사람, 노력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리를 깨닫고 봉공하는 원불교의 교학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대안학교로는 성지송학중학교, 영산성지 고등학교가 있어서 도시나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인격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영광군 전체인구 51,947명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759명이므로 3/10이 노인의 비율이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 65세 이상 영광군 노년층 인구분포

지역 연령	영광	백수	홍농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법성	낙월	계
남	1,861	756	609	275	308	248	360	467	713	731	104	6,432
여	2,540	1,198	870	385	438	305	582	741	1,053	1,120	95	9,327
계	4,401	1,954	1,479	660	746	553	942	1,208	1,766	1,851	199	15,759
읍면간 비율	27.93	12.4	9.39	4.19	4.73	3.51	5.98	7.67	11.21	11.75	1.26	100.02 (%)
자체 비율	20.15	42.84	22.61	38.57	42.97	41.12	41.46	38.66	45.15	36.19	34.73	

영광군 전체적으로는 남자 6,432명, 여자 9,327명으로 여성이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 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읍면별로 자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비율이 영광이 20.15%, 홍농이 22.61인데 비해, 백수읍을 비롯한 면단위 인구비율이 35%에서 45%를 차지하고 있다. 읍면간의 비율에서도 백수읍 12.4%, 법성 11.75%, 염산면 11.2%, 군남 7.67%, 군서면 5.98%, 묘량면 4.73%, 대마면 4.19%, 불갑면 3.51%로 청소년 연령보다 배 이상 되는 비율이다. 즉 면단위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숫자가 자체적인 연령비율 뿐 만 아니라 읍과 비교할 때 훨씬 많아진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현재 영광지역에서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이 두 군데 설치되어 있다. 하나는 청은보은동산에서 운영하는 영광여산실버, 삼동회에서 운영하는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가 바로 그것이다.

<표 12> 영광교구내 노인요양원²¹⁾

노인요양원	위치	개원연도	인원	사회복지법인
영광여산실버복지센터	군남면 군불로 91-4	2007	18명	청운보은동산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영광읍 불무로2길 35-6	2008	10명	삼동회

영광여산실버복지센터는 청운보은동산에서,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는 삼동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센터로서 영광교구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면단위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두 군데는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지역공동체에서 원불교의 역할이 노인층의 비율이 많은 농촌에 노인복지센터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도시교당 사례 - 영광교당

1. 영광교당의 연혁²²⁾

영광교당은 영광읍 불무로길 51(무령리)에 위치해 있다. 1934년 4월 26일 영산교당 이원화 종사가 백학리 정태원 교도집에서 월 3회 출장법회를 보았고, 1949년 도양교당 교무 안이정 종사가 다시 조광철 교도집에서 출장법회를 보았으나, 교당 설립은 1953년 4월 총부에서 양혜련 교무를 영광출장법회 담임교무로 사령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양혜련 교무는 교도들의 힘을 결집시키기 위해 1955년 봄에 구타원 이공주를 초청하여 백학리 강성태의 집에서 강습회를 개최하였는데, 모여든 300여 명의 대중 가운데 50명이 입교하였다. 양혜련 교무는 여세를 몰아 1955년 11월 교당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2월에 건물을 완공하고 신축교당에 입주하였다.

이후 관공서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교화에 힘써서 1969년에는 교도수가 395명에 이르렀고, 1970년에는 학생회가 창립되었고, 1975에는 청년회가 결성되었다. 특히 권재홍 영광해룡중고등학교 교장의 지원과 해룡중고등학교 권세원, 권도원 교무의 노력으로 1974년 3백 4명, 1975년에는 217명의 학생들이 입교식을 거행하여 청소년 교화가 활성화되었고, 1976년에는 봉공회와 원화회가

21)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 「노인복지기관」, 『원불교100년총람』 4(기관·자선·복지), 원불교출판사, 2017, 706-739쪽.

22) 영광교당 72년사 편찬위원회편, 『세계에 길이 빛날 영광』, 월간원광사, 2006, 82-181쪽.

조직되었다.

이처럼 영광교당이 활발한 교화활동을 펼쳐 나가자 1977년 5월 영광교당은 교구청 교당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영광관내 13개 교당들이 영광교당들이 영광교당을 중심으로 교구체제를 확립하고, 영광교당은 교구청 교당으로 위상이 정립된 것이다. 특히 이수호 교구장은 마을법회와 출장법회를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교화방안을 모색하여 신용협동조합과 어린이집 건립에 힘을 기울였다. 1978년 12월에는 영광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하여 이듬해 2월 1차 정기총회에서는 조합원 113명에 390만원의 자산금이 확보되었다. 또한 1981년 3월 9일 원광유치원이 개설되었는데, 유치원 운영을 통해 어린이 교화 뿐만 아니라 자모 교화까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영광교당을 중심으로 대규모 합동법회, 체육법회 등 교구차원의 연합행사들이 기획되었고, 봉공회, 원화회, 원덕회 등 일반조직들이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호유대를 강화하였다. 청년회, 학생회도 연합법회, 연합훈련, 체육대회, 문화행사,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친목과 결속을 다져 나갔다.

이어 조정중 교구장은 인물,인천 중심의 교화단을 지역 중심 교화단으로 재편(남자 5단, 여자11단)하고 영광교당 최초로 12인승 승합차를 구입하여 마을 순회법회를 활성화하였다. 뒤를 이은 정수덕 교구장은 1987년부터 시작된 교구청 건립을 위한 1000일 기도가 1990년 4월 8일자로 회향함에 따라 1990년 5월 3일 기공식에 착수하여 12월경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의 교구청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무렵에는 일반교화와 함께 청년교화와 학생교화, 어린이 교화가 고르게 성장하여 중학생법회가 따로 운영되었으며, 원덕회, 봉공회, 청년회에서 대사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1988년부터는 원불교 중앙청운회와 영광교구 청년회에서 “원자력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핵발전소 반대운동의 불씨를 지피나갔다. 1989년 영광지역에서 핵발전소 11,12호기 건설저지대회가 일어나고, 1993년 원자력 3,4호기 부설공사가 알려지자 1894년 서종명 교무에 의해 영광천지보은회가 창립되어 진상규명과 함께 5,6호기 건설반대운동을 벌였다.

이후 2001년 정부에서 영광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설치하려고 하자, 영광천지보은회 재발대식을 갖고 5월 11일 3천천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핵폐기장 반대 영광군 대책위원회(공동의장 김성근 교무)에 참여하였다. 8월 초부터는 교당 대표들이 지역, 마을별 서명운동을 시작하였고, 중앙총부를 방문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성지수호 차원에서 교단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전개된 행사를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원불교 교단의 영광핵폐기장 설치반대운동²³⁾

일시	주관	내용	비고
2001. 4.22.	영광교구청	영광천지보은회 발대식 및 환경강연회	한국환경민간단체 진흥회 후원
2001. 5.11.	영광군민	핵폐기장 반대 영광군 대책위원회 출범 및 규탄대회, 반대서명운동	영광 핵폐기물 시설 유치위원회
2001.8월초	영광교구	교당별 지역, 마을 서명운동, 영광장날 영광교구 교무들의 가두서명	
2001. 8. 5.	영광교구 및 교도회장	교정원장을 면담하고 교단적 지원 요청	성지수호차원
2002.11.10.	원불교 중앙교의회	영광핵폐기장 유치 반대결의문 채택, 범교단적 대책위원회 구성	
2002.11.21.	중앙총부	영광 핵폐기장 설치 반대 원불교 성지수호 대책위원회 결성	
2002.12.10.	영광군민 7천명	핵폐기장 반대 성지수호 기도식 및 궐기대회	
2003. 2.13.	영광 군민, 원불교 교역자	영광군민 6천명과 함께 반대운동 서울사직공원에서 원불교교역자 1,000여 명 비상총회 개최(핵폐기장 백지화 및 핵발전 시설반대)	2.4 핵폐기장 설치후보지로 영광, 고창, 울진 영덕 발표
2003. 3.21.	영광지역 전무출신	핵정책 전환과 핵폐기장 후보지 백지화를 위한 100일 단식기도	
2003. 6.29.	영광성지수호 대책위원회	원불교비상기획단 출범식 및 영광읍 일원삼보행사,	영광상주
2003. 7. 1. 이후		영광성지 난입사건 규탄, 핵폐기장 반대 원불교 비상대책위원회로 명칭 변경, 핵폐기장 유치 저지를 위한 지지집회(서울, 영광 등) 및 홍보, 단식 및 사은헌배	방폐장 위치위원회 영산성지 난입 사건
2003.12. 7	영광군수	영광군 핵폐기장 유치 반대	지역화합 차원

23) 같은 책, 162-182쪽.

<표 13>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영광군민과 함께 핵폐기장 설치 반대를 위해 영광 원불교구에서는 교당의 교무, 교도들과 함께 반대운동을 주도하였으며, 중앙총부와 함께 영광성지수호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단식과 삼보일배, 군청에서의 무기한 단식농성 등으로 방폐장 유치위원회의 반대를 뚫고 2003년 12월 7일 영광군 핵폐기장 유치를 물리쳐냈다.

이후로도 원불교에서는 시민들과 천주교 등 종교단체와 함께 원전 대신 풍력과 태양광의 자연에너지로의 대체, 생명평화를 위한 탈핵운동을 매주 군청앞과 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실시하고 있다. 2022년 6월 27일 탈핵순례 500주기를 앞두고 있다.

영광교구는 이처럼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핵폐기가 이루어지는 생명평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활발한 교회활동과 교육사업, 봉공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바, 영광교당에서 전개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검토해보자.

2. 영광교당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영광교당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복지사업은 사업은 원광어린이집과 초록디딤돌 지역아동센터,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운영 등이다. 원광어린이집은 영광읍내에 여성취업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들을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원만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도와줄 기관이 필요해서 설치되었고,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활동을 돕는 기관이며, 노인병원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집안에서 돌보기 힘든 노인들의 복지시설이다.

1) 원광어린이집²⁴⁾

어린이집의 공식명칭은 재단법인 원불교 원광어린이집이다. 어린이집의 명칭인 ‘원광’은 일원의 광명을 뜻하는 바, 일원의 진리에 바탕하여 본래 갖고 있는 어린이의 천진성을 발현하여 진솔하고 탐구하며 감사하는 어린이로 키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돕고 있다. 원광어린이집은 영광읍 풀무로 2길 5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1994년 1월 21일 설립되었다.

어린이는 만1세부터 만2세까지 영아, 만3세부터 만5세까지 유아로 구분하며, 영아에서 유아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24) 영광원광어린이집, 『2022년 원광운영요람』 참조.

<표 14> 원광어린이집 교육목표

영아를 위한 교육목표	유아를 위한 교육목표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자조능력을 기른다.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자조능력을 기른다.
대소근육의 움직임을 통하여 기초체력을 기른다.	생활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태도를 기른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과 즐겁게 생활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생활하며 사회현상에 관심을 갖는다.
자연과 사물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기른다.	자연과 사물의 예술적인 요소에 대한 호기심, 창의적 표현능력, 흥미감을 기르고 정서적 안정감을 가진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른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언어능력을 기르고 바른 언어생활 습관과 태도를 가진다.
주변의 사물과 자연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가진다.	주변의 사물과 자연 현상에 대하여 호기심과 관심을 탐구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영아는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자조능력, 한창 자라나는데 필요한 체력과 정서, 언어능력, 탐구심을 갖는다면, 유아는 여기에 더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태도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과 예술적 흥미감, 언어나 탐구능력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목표는 영광읍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 2동의 건물, 10개의 보육실, 화장실 10실을 포함해서 보조시설 19실을 두고 있다. 어린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5> 영광 어린이집 반별현황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등지 1반 6명	씨앗반 7명	새싹반 14명	꽃잎반 16명	뿌리반 19명
등지 2반 6명	풀잎반 8명	잎새반 15명	줄기반 17명	열매반 19명
	초록반 8명			
계 12명	23명	29명	33명	38명

만1세와 만2세의 영아반 5개반 35명,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아반 6개 반 100명이다. 영, 유아반 교육을 총괄하는 시설장 1인과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반별로 1명씩 두는 보육교사 11명, 보육교사의 휴식 등으로 인한 교사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두는 누리보조교사 1인, 일반보조교사 2인, 그리고 유아들이 집에 돌아가고 난 뒤 16시 이후부터 19시 30분까지 더 돌보는 연장교사 1인을 합하여 모두 16명을 두고 있다. 기타 어린이 급식과 영양을 맡은 3명, 차량지원 1명, 기타 1인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린이는 07: 30~ 08: 30에 등원하여 통합보육과 오전 활동(간식 포함), 12:00~13:00 점심식사 및 양치질하기, 17:00~17:30 오후 활동(간식 포함), 17: 30~19:30 통합보육을 받고 귀가한다. 원광 어린이집은 군청 직원들의 아이들이 22명이나 될 정도로 영광관내에서 인기가 높다.²⁵⁾

원광어린이집은 영아와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추어 편성한 연간보육계획안과 하루일과표에 따라 운영된다. 영아반은 특색교육으로 트니트니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몸 튼튼, 마음튼튼의 신체활동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실내 놀이를 통해 소근육과 대근육, 모험심, 도전정신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유아반은 체력과 인지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미술, 체육, 음악, 영어, 드론, 풍물 등 능력과 특성에 맞추어서 다양한 특색 교육을 실시한다.

원광어린이집에서 원불교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특색교육으로 마음공부가 있다. 마음공부는 자신이 원래 훌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계에 따라 마음이 요란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릇되지 않도록 일어난 마음을 살펴 원래 마음에 대조하여 행동하는 공부이다. 공부방법은 영아반과 유아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영아반은 마음대조 신호등을 통해서 마음공부를 한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면 빨간불로 마음을 멈추고, 노란불로 마음을 지켜보고 대조하며, 초록불로 원래 마음으로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유아반은 STAR 마음공부 대조법을 쓴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일이 생길 때는 멈추고(Stop), 생각하고(Think), 행동하고(Action), 돌아보는(Review) 것이다. 마음이 요란한 상태에서는 바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멈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온전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쌓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각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면 용감하게, 안해야 할 일은 단호하게 안 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동을 끝났으면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다. 잘 멈췄는지, 잘 생각했는지, 잘 실행했는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 즉 담당 선생님께 도움을 받는 것

25) 2022년 5월 4일 이애영 시설장과 인터뷰 기사.

이다. 이처럼 매일 마음 대조 신호등이나 마음일기를 쓰고 금요일마다 교무님의 지도를 받으면 삼학수행에 기초한 마음공부의 요체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2) 초록디딤돌 지역아동센터

2006년 6월 개원한 영광읍내 소재 지역아동센터로서 영광읍 물무로 2길 39-3에 위치해 있고, 국가보조금과 도,군 보조금,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원불교 영광교당에서 운영한다. 지역사회의 기초수급과정, 결손가정, 자문화가정, 저소득가정의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며, 일반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바르게 성장하고 즐겁게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정원은 29명, 센터장, 생활복지사, 아동복지교사 2인, 사회복지무원, 조리원 등 6명이 있다. 센터운영시간은 학기중에는 오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방학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급식은 학기중에는 저녁식사를, 방학동안에는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학기중에는 오후 4시가 넘어야 등원하기 때문이다. 2020년에 진행했거나 진행중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²⁶⁾

<표 16> 초록디딤돌 2020년 교육프로그램

교육	국어, 수학학습지도, 한자학습, 기초영어, 독서지도, 미술아 놀자, 환경교육, 경제교육
문화	겨울캠프, 여름캠프, 가을캠프, 드림잡스쿨 체험학습, 박물관체험학습, 피자만들기(들꽃 마을) 체험학습, 나만의 그릇만들기 체험학습, 고무마캐기 체험학습
정서지원	리딩푸드, 생일잔치, 영과관람, 센터에서 1박 2일, 월2회 외식, 공연관람, 목욕지원, 아동상담, 학부모상담
자치활동	아동자치회의, 스포츠 활동
지역사회연계	어부바 멘토링, 다문화수업, 맘-폼.

2020프로그램은 2월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적지 않은 굴절을 겪었다. 아동들은 등교, 휴교와 함께 센터등원과 가정돌봄을 병행해야 했다. 또한 외부강사의 센터출입이 제한되어서 일부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은 2021년에도 변함이 없었다. 센터에서는 아동들의 등, 하원시 체온을 재고

26) 초록디딤돌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아이들의 꿈터」(소식지 14호), 영광읍, 2020.12.31.

간식과 식사전후 손씻기와 손소독을 하며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면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학습지도면에서 독서지도는 영광도서관의 후원으로 매일 책 한 권 읽기, 미술아 놀자는 격주 수요일마다 실시하는 만들기, 그리기, 꾸미기 수업이다. 문화면에서 겨울캠프는 화순리조트, 소쇄원, 광주오렌지치즈카페를 다녀왔고, 여름캠프는 가마미해수욕장, 가을캠프는 거창포도송이 펜션, 광주패밀리랜드를 다녀왔다. 드림 잡스쿨은 소콜라티에, 바리스타, 3D전문가를 체험하는 시간, 정서지원면에서 리딩 푸드는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의 내용을 듣고 느낌을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식재료를 통해 음식을 만드는 시간, 지역사회 연계에서 어부바 멘토링은 영광합평 신협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와 경제에 대한 체험, 다문화수업은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시각을 넓히는 시간, 맘-폼은 영광교육청 지원으로 아동과 멘토가 목욕하고 밥먹고 엄마와 딸이 되어보는 시간 등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맑고 밝게 슬기롭게 성장해가는 것이다.

3)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²⁷⁾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화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8일 준공하고, 개원하였다. 대지면적은 747㎡, 건축면적 197.2㎡, 연면적 360.76㎡이다. 2009년 1월 5일 노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교부받았다. 시설정원은 입소 10명, 주야간보호 9명, 방문요양은 80명이다. 2022년 2월 28일 현재 시설 및 재가 이용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7> 원광노인복지센터 이용자 현황

구분	등급별						성별			대기자	비고
	1	2	3	4	5	계	남	여	계		
입소	1	3	3	2		9(10)		9	9		입원1
재가											
주간보호			1	3	5	9(9)	2	7			입원2
방문요양						13(80)					

27) 정종복 영광노인복지센터장 제공, 「2022년 3월 업무보고」(사회복지법인삼동회, 영광원광노인복지센터).

입소는 현재 복지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이 높아 종일 돌보야 하는 노인, 재가의 경우는 장기요양등급이 낮아서 집에서 요양할 수 있는 노인이다. 재가요양인은 크게 주간보호와 방문요양으로 구분된다. 주간보호는 영광노인복지센터에서 직접 차로 모시러 가서 하루일과를 마치고 집앞에까지 모셔드리는 서비스, 방문요양은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노인을 방문하는 서비스이다. 영광노인복지센터의 경우 노년층 여성들이 입소하며, 주간보호도 여성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2년에 걸친 코로나 방역으로 크게 줄었으나, 현재는 그 숫자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V. 농촌교당 사례 - 영산교당, 신흥교당

1. 영산교당의 지역공동체 활동²⁸⁾

영광교당의 지역공동체 활동은 2005년 영산교당 김선명교무(현 영광교구장)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당시 영산교당이 위치하고 있는 길룡리는 잠실, 영촌 구호, 범현 등 네 개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2005년 당시 마을별 현황과 인구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표 18> 2005년도 길룡리 마을별 인구현황

마을	가구	주민수	0-19세	20-49세	50-64세	65세이상
잠실	11	26	5	3	3	15
구호	14	33	8	10	8	7
영촌	12	25	2	4	4	15
범현	6	14	3	1	2	8
합계	43	97	18	18	16	45

길룡리는 총 43세대 97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으며, 19세이하 청소년 인구 18명중 12명이 한父母나 祖父母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실정으로 무려 67%에 달했

28) 영산교당에서의 지역공동체 활동은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서 당시 김선명 영산교당(현 영광교구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자료역시 김선명 교구장님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다. 또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45명, 전체인구의 46%로써 초고령 사회를 나타내고 있었다. 주민들은 상업과 직장에 다니는 3-4戶를 제외하고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독교에 다니는 2戶를 제외하면 원불교 교도나 신도로서, 전무출신을 배출한 가정이 12戶나 된다. 전답의 비율은 40:60 정도이며, 대부분의 가구가 영세농이다. 대부분의 경작형태는 임차경작과 자작을 겸하고 있는데, 미작 외에 고추, 참깨를 심고 있으며, 청장년회에서는 녹색연합과 연합하여 삼밭재 기습에 복분자와 매실을 식재하고, 장뇌삼을 파종하고 있다.

길룡리는 영산사무소, 영산선학대학교, 영산성지고등학교, 영산교당이 있어서 각기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있으며, 길룡리의 교회는 영산교당에서 전담하고 있다. 정례 예회는 매월 3·13·23일 (평균 5~60명 출석), 매주 금요일야회가 기도와 교리공부로 진행되며(평균 10~15명 출석), 마을(교화단) 법회도 5~7개 마을에서 이루어진다. 평균 4~15명 정도 출석한다. 기타 청소년 법회도 매주 토요일 어린이·학생 법회로 진행되며, 평균 15, 1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매월 초 월초기도(매월 1~3일)와 보은기도(매월 15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각개교절 전야 기도식이 4월 26~27일 영산사무소와 합동으로 대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타 지역사회를 위한 봉공으로는 농한기를 이용하여 어르신 한글교실, 건강요가교실을 영산교당에서 진행하고 있고, 방과 후에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다.

길룡리 마을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상하였다. 영광군 백수읍 논산리, 천정리, 길룡리, 구수리, 장산리 등 5개 마을 아동 및 청소년, 노인 등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모델로서 농촌마을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전국 최초의 ‘농촌마을 통합 복지’ 모델인 ‘살고자픈 영산마을’은 재가복지, 문화복지, 생산 공동체, 지역 아동센터, 마을 도서관 및 정보실 운영 등을 하였고, 2006년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를 신고하였다. 당시 농촌마을 통합복지를 위해 편성된 계획과 예산은 <표 19>와 같다.

세부계획으로는 첫째, 지역아동센터와 재가복지센터가 결합된 통합복지모델을 구상하였다. 즉 길룡리 현실을 감안할 때 결손가정 청소년과 노령층을 위한 배려가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에 영산선학대 사회복지학 전공과 협력하여 새로운 복지모델을 선도적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영산교당에 “방과후 공부방”을 부설, 운영하였으며, 영광군청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였다. 통합복지모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영산선학대와 영산교당 및 영산 사무소에서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며, 인력과 운영주체는 현실 사정을 고려하였다.

<표 19> 2005년도 길룡리 마을공동체 사업예산

사업명	예산		협조
지역아동센터 재가복지센터	1,740만원	- 인건비 1인 100만*12=1200만원 - 사무비 10만*12=120만원 - 차량비 10만*12=120만원 - 사업비 25만*12=300만원	영산선학대학교 영산사무소 영산성지고등학교 영산교당
마을한마당잔치	160만원	- 이벤트 회사 진행비 70만원 - 행사 진행비(공양, 선물) 90만원	"
교육사업지원	100만원	- 선진지 견학 50만원 - 자체 수련회 50만원	"
생산물유통지원	0원	교단내 기관과 교당에 협조 요청	기관 및 교당
합 계	2,000만원		

둘째, 마을 한마당 잔치를 실시하였다. 길룡리 주민과 교단과의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대동 한마당은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기관과 길룡리 주민들이 가을일을 끝내고 명절대재를 즈음하여 실시하였다. 불거리와 놀거리 등으로 한 가족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으며, 부족한 예산은 네 기관에서 추렴하였다.

셋째, 생태교육사업을 실시하였다. 정관평 권역의 생태 농업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마을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라는 명제를 가지고 영산에 맞는 소득작물 및 생태농업은 연구하고, 1년에 1~2회 생태농업단지 방문교육과 강사 초빙을 통한 자체 수련회 활동 지원하였다.

넷째, 농산물 유통을 지원하였다. 농촌에서 청장년들이 정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생산된 농작물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 교당에서 적극 나서서 판로를 개척하였다. 즉 쌀, 콩, 고추, 참깨, 찰보리, 모시송편, 복분자 등 길룡리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유통시켜 현실적인 도움을 삼게 하였다.

이러한 길룡리 지역공동체 운동은 이후 민들레 지역아동센터의 활동과 정관평 유기농으로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는 원불교 영산교당을 중심으로 농촌마을단위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세대통합과 마을공동체의식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표 20>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 이사회/운영위원회 명단

순번	성명	소속기관·단체/직위	비고
1	윤금희	영산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운영위원
2	최경수	원불교 영산교당 주임교무	운영위원
3	박문철	후원자대표(재운상사 대표)	운영위원
4	백종수	길용1리 마을주민 대표	운영위원
5	김도연	이용아동의 보호자 대표	운영위원
6	장원경	교육전문가. 성지고등학교 교장	운영위원

실제로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주간복지(마을 어르신들 한글교실, 썩뜸, 선 요가 등의 건강교실 등)사업과 독고노인 반찬배달 사업을 통한 마을중심의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아동과 가족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성을 높임으로써 효율적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는 농촌지역 마을단위 아동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해 도시·중앙중심의 아동복지행정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것이며, 원불교의 공동체적 정신과 통합복지모델을 실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백수읍과 군서면에 거주하는 아동들이다. 백수읍은 법정 17리(운영 42리) 87마을이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논산리, 길용리, 구수리 방면의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군서면의 경우 법정리 10(운영리 21) 35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은 만곡리, 남계리, 남죽리, 마읍, 만금리 방면의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두 지역 모두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소득수준이 열악하고, 이용아동들은 장애아동, 조손, 한 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맞벌이 가정의 아동들이 많다. 현재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 농촌의 아동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들은 일반아동이라고 해서 선별적으로 이용을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2022년 이용아동 선정기준에 의하여 60%는 우선돌봄아동, 일반아동은 40% 범위 내에서 22명의 아동들을 돌보고 있다.²⁹⁾ 2022년도 연간사업계획은 <표 21>과 같다.

29)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 제공자료, 「교정지도」

<표 21> 2022년도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 사업내용³⁰⁾

영역	프로그램명	세부 사업내용
보호	급식	· 급식도우미 배치(노인 일자리) / · 영광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표이행
	보호	· 아동 출석 관리/결석아동 전화, 방문 / · 생활지도, 식사지도·차량 운행
	위생 점검	· 아동 손, 발톱 검사, 매일 이닦기 / · 옷, 양말 등의 착용 점검
	아동복지후생 아동권리 프로그램	· 건강검진, 병원 이용 / · 아동자치회의(매월 정기회의/사안별 비 정기회의) / · 아동권리교육, 5대 안전 의무교육
교육	맞춤형 기초학습	· 유치원~초등학생 : 학년별 기초 학습(온라인 학습, 학습지) / · 중학생, 고등학생 : 『뜯어먹는 영단어』, 『보카 영단어』 매일 5단어 암기
	15분 독서	· 『매일 15분 책읽어주기』 / · 담당교사별 아동 한명 당 1:1 맞춤 지도 / · 아동복지교사 연계 독서지도
	기타 연습	· 주 1회 레슨 / · 매일 스스로 연습 / · 센터 졸업생 재능 기부 활동 연계
	배드민턴 & 탁구(체육활동)	· 기초 이해와 게임레슨 / · 복식 경기
	국악	· 남도 소리, 남도 민요를 배우기 / · 국악 마당 / · 전문 강사 / · 바우처 지원 사업
	젠 탱글	· 젠 탱글 기초 패턴 익히기 & 초·중급 / · 개인별 작품집 / · 연말 작품 전시회 개최
	몸 챙김 요가 & 바디스캔	· 바디스캔을 통한 이완과 스트레스 해소 / · 여름방학 기간 동안 집중 교육
문화	문화체험	· 원데이 클래스 / · 특별 기획 문화체험 프로그램 · 월별 영화, 연극, 음악회, 뮤지컬 등 공연관람 · 견학, 계절체험, 야외 현장체험 등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
	방학 캠프	· 모험놀이 캠프 / · 여름 / · 겨울 캠프
	송년회 작품전시회	· 1년을 마무리 행사 / · 공연과 축제 한마당
복지 (아동 정서 지원)	아동상담	· 아동상담(상담일지, 관찰일지 작성 및 관리) / · 상시상담 및 정기상담
	부모상담 가정방문	· 부모상담(전화상담, 가정방문 등) / · 상시상담 및 정기상담
	음악치료 생일파티	·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 · 장애아동 음악 치료(바우처 서비스 지원) / · 매월 생일아동 생일파티 / · 입학·졸업 축하파티
지역 사회 자원 연계	학교와의 연계	· 매 학기 초 각반 담임선생님 상담 / · 아동들의 학교 선생님과의 연대 / · 초등 돌봄 교실 3권역별 협의회
	부모교육	· 아동 교육과 관련한 학부모와 보호자 교육 / · 년 1~2회
	운영위원회	· 분기별 실시(3/6/9/12, 년 4회)
	지역사회와의 연계	· 지역연대모임, 지역연대 행사 참여 / · 정기검진, 치료(영광군 보건소, 영광 종합병원, 기독교병원) / · 영광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청소년지원센터, 여성의 전화
	후원인 자원봉사자	· 후원인 발굴, 모집, 관리 / · CMS후원, 계좌이체 후원 / · 푸드뱅크 등 물품 후원 / · 1318가입, 자원봉사자 재능기부 활동 관리

30)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 제공자료, 「2022년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

2. 신흥교당의 지역공동체 활동

신흥교당은 영광군 묘량면 신흥마을에 위치해 있는 교당으로서 주민 대부분이 원불교 교도이며, 원불교 교단 초기부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때문에, 1935년 4월 불법연구회 『회보』 15호에서 영육쌍전의 모범마을로 소개된 이후 신흥교당 출가인물이나 신흥저축조합 연구가 박용덕과 신순철에 의해서 1999년과 2000년에 진행되었다.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박맹수 교수, 김희태 전남문화재전문위원, 성대철 박사 3인이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영광군,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에 제출함으로써, 2017.10.23 국가등록문화재 제693호(대한민국근대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어 2020년 12월에는 원광대 홍승재 교수가 책임연구원이 되어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영광군에 제출함으로써, 신흥교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흥마을의 문화마을 운동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³¹⁾

먼저 신흥교당에서는 1936년 건립된 신흥교당 대각전 종합정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광군과 문화재청의 지원으로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단기사업(1-5년)은 대각전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 대각전 복원 정비를 위한 설계를 거쳐 대각전 원형을 복원하며, 중기사업(6-10년)은 현 소법당 및 생활관을 철거하고 1920년 설립된 묘량수신조합을 복원한다. 또한 73m에 달하는 담장을 정비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며 문화재 주변 환경을 정비한다(담장은 167.4m, 지붕개량, 시멘트블록 창고 정비 등), 장기 사업(6-10년)으로는 노출된 우물을 정비하며,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 이어 정자를 이건하고 마을 뒷숲을 정비하여 문화마을을 위한 경관을 구축한다. 관리운영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는 ‘영광 신흥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회’와 원불교 재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고, 영광군이 실무를 담당한다.

둘째, 주변환경정비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되 마을공동체인 ‘영광 신흥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회’에서 유지관리하며, 향후 수익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영광군에서는 신흥교당과 주변의 농경지, 신천리 삼층석탑 등을 활용하여 축제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

31) 아래 내용은 영광군/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종합정비계획』, 2020.12, 135-140쪽을 요약함.

넷째,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은 관람객에게 상시 무료로 개방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20년에는 다음과 같은 문화마을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³²⁾

첫째, 자연과 함께하는 신흥힐링 캠프가 운영되었다. 신흥 마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자연 친화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잠깐 유익을 취하고 마을의 문화재를 홍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9월 총 5회 운영되었다. 1박 2일의 프로그램으로 선착순 15명으로 제한하였으며, 장소는 신흥마을 안산선방이었다. 프로그램으로는 답사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였다. 마을에서 채배하는 작물과 자원을 이용하여 야생녹차 만들기, 허브 기르기, 허브차 만들기, 장아찌 만들기, 천연비누 만들기 등의 체험으로 감사와 즐거움을 함께 느끼도록 하였다. 또한 신천리 삼층석탑에서는 일출과 일몰을 바라보며 명상 속에 자연과 하나되어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리고 저녁에는 안산 선방에 돌아와 숙박하고 참가자들이 마을에서 제공하는 식재료와 채취한 산나물로 식단을 구성하여 직접 요리하며 식사를 하였다.

둘째, 신나고 흥미로운 신흥문화교실이 운영되었다.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4회 운영되었다. 대각전을 비롯한 삼층석탑에서 마을과 인근주민, 문화해설사 등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 강사를 초빙하여 다도와 함께 강연을 듣고 문화재를 탐방하도록 하였다.

셋째, 신나고 흥미로운 신흥역사탐방교실이 이루어졌다. 2021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 운영되었으며, 신천리 삼층석탑, 신흥 대각전, 묘량면소재지 이규헌 가옥, 묘장영당, 불갑사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내학생과 교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에 대한 소양을 기르도록 하였다.

넷째, 신흥마을 별빛 음악회가 실시되었다. 2021년 10월 안산선방에서 영광군민 등 일반인, 지역예술가, 자원봉사자, 문화해설사, 관내 학생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음악을 청취하면서 대나무 숲, 솔바람, 수국의 향기가 그윽한 밤을 느끼게 하였다.

아울러 신흥교당에서는 묘량면 소재지에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자

32) 김정로 신흥교당 교도회장이 제공한 각종 계획서 및 실천사례 인용

와 지역사회와의 연계하에 건전한 놀이와 오락,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묘량면과 영광읍 초등학교생과 중학생 25명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³³⁾

<표 22> 느티나무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영역	세부영역	세부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시설별 선택 운영)
보호	생활	일상생활관리	센터생활적응지도, 일상생활지도, 일상예절교육, 부적응아동지도 등
		위생건강관리	위생지도, 건강지도 등
		급식지도	급식지도, 식사예절교육 등
	안전	생활안전지도	저녁돌봄 등
		안전귀가지도	안전귀가지도, 생활안전지도 등
		5대안전의무교육	교통안전, 실종유괴예방, 약물오남용예방, 재난대비, 성폭력예방 등
교육	학습	숙제지도	숙제지도, 학교생활관리 등
		교과학습지도	수준별 학습지도, 온라인교육(IPTV 학습 등),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등
	특기 적성	예체능활동	미술, 음악, 체육지도 등
		적성교육	진로지도, 적성교육(독서, 요리, 과학 등) 등
	성장권리	인성·사회성 교육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등
		자치회의 및 동아리 활동	자치회의, 동아리 활동 등
문화	체험 활동	관람·견학	공연 및 연극 관람, 박물관 등 견학 등
		캠프·여행	체험활동, 캠프 및 여행 등
	참여 활동	공연	공연 등
		행사(문화/체육 등)	전시회, 체육대회 등 등
정서 지원	상담	연고자 상담	부모 및 가족상담, 연고자 상담 등
		아동 상담	아동상담 등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지원 프로그램 등
	가족 지원	보호자교육	보호자교육 등
		행사·모임	부모소모임, 가정방문 등
지역 사회 연계	홍보	기관홍보	기관홍보 등
	연계	인적연계	자원봉사활동, 인적결연후원, 후원자관리 등
		기관연계	지역조사와 탐방, 전문기관 연계복지단체 연계 등

33) 허원용교무 제공, 「2022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VI. 맺음말

지금까지 영광교구 산하 도시교당인 영광교당, 농촌교당인 영산교당과 신흥교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에서 원불교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원불교는 개교 이래 사은사요 신앙과 무아봉공의 실천을 통해 일원상의 낙원세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원불교의 낙원세상 건설은 올바른 깨달음과 행동, 불법을 생활화하는 진공묘유의 수행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인 ‘제생의세(濟生醫世)’의 실천운동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원불교의 교리는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선언한 원불교의 실천방침에 따라 1960년대 이후 점차 농촌교회에서 도시교회에 적용되고 있다.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1차 산업에서 2차, 3차산업으로 경제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미 1990년대 후반 도시교당의 숫자가 농촌교당의 3배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농촌 지역 교화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국가적으로도 농촌에서 먹거리 생산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자체에서도 농촌 지역 인구의 유출을 억제하고 다양한 인구유입정책을 펴고 있다. 무아봉공과 약자가 강자로 되는 길을 통해 모두가 낙원세상으로 가는 길을 추구하는 원불교에서도 농촌교화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농촌교화를 해야 하는가. 요점은 지역사회에서 원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교화를 병행하는 것이다.

먼저 영광군의 인구구성은 2만명이 넘는 영광읍과 5천명 내외의 흥농과 백수읍, 법성면, 대략 2,3천 명 정도의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 등 여러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이나 노인층의 비율에 있어서도 읍면간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인구구성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불교의 지역공동체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볼 수 있다.

첫째, 영광읍의 경우 인구가 2만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0세~7세 인구도 1,608명에 달한지만, 현재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집은 수용인원 135명의 원광어린이집 한군데에 불과하다. 따라서 어린이 집을 추가로 설치할 수는 여유가 있다. 아동들의 경우 어릴 때의 기억과 습관은 평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올바른 습관과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원불교의 삼학공부와 일원상의 이념이 반영된 마음공부는 아동들의 본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자질을 튼튼히 해주는 중요한 초석이 된다. 영광읍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원불교 교당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영광읍에 몇 개의 어린이 집이 있다고 하나, 서로 간의 역할과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크게 무리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한다. 홍농읍이나 법성포의 경우도 아동인구가 473명, 법성포는 219명이나 되므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한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군남, 염산면의 경우에는 아동 수가 100명 미만이지만, 교당간에 연합을 통해 운영하는 방안이나 묘량이나 불갑, 백수읍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둘째, 현재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영광읍 등의 도시교당이나 면단위 농촌 교당에 노인복지센터가 많지 않다. 영광읍의 65세 이상 노인층 인구는 4,401명이나 되며, 1천 명이 넘는 곳도 백수, 홍농, 군남, 염산, 법성 등 다섯 군데나 된다. 그렇지만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는 영광읍과 군남면 각각 1개씩 두 개에 불과하다. 행동이 부자유스러운 노인들이 편안하게 심신의 안정을 취할 뿐만 아니라, 사은사묘의 실천을 통해서 건강한 영성의 회복을 통해 낙원세상을 만드는 것은 원불교 교화의 목표이기도 하므로, 고령층 인구가 많은 농촌교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간보호는 아침부터 오후까지 노인들의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국가적 지원도 상당하다. 다만 주간보호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케어를 담당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원불교에서는 원광대학교와 원광보건전문대에서 우수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출하고 있으므로, 다른 기관보다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도시교당과 농촌교당의 현실에 걸맞는 교단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전술한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땅을 구입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건물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복지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초기투자 비용은 개별 교당이나 영광교구 자체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므로, 원불교 교단이나 여러 원불교 사회복지기관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어린이나 청소년, 노인층을 배려한 복지기관을 설치해야 할 것이다. 설치한 이후에는 개별 교당에도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마음공부나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원불교의 교화를 실현해나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복지기관의 설립은 지역사회의 여러 조직이나 기관과 이해가 얹혀 있으므로, 다른 단체나 종교와의 충분한 상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영광지역에서의 원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담

당 교무들의 사명감을 높이고 근무기간을 늘려줄 필요가 있다. 농촌지역에서 교화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4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교당 부근의 면민들이나 교당에 출석하는 교도들과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해서 여러 해 동안 친교가 계속되어, 삶과 죽음을 함께 위로하는 영성의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교당 주변의 면민들 뿐만 아니라 보수화되어 있는 7,80대 노인들과의 교화도 가능할 것이다. 현재 원불교에서는 근무연한을 6년으로 하고 있고, 원하는 경우 3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흥교당의 이호인 교무는 그곳이 고향일 뿐만 아니라 현재 9년을 봉직하고 있어서 신흥마을 일대의 주민들과 일체감을 형성하여 교당과 마을의 대소사까지 봉공하고 있다. 결국 농촌교당의 교화를 위해서는 담당 교무들의 높은 사명감과 장기 근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원불교에서 중시하는 생명평화 정신을 영광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의 파괴속에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안전한 환경과 양질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광은 불갑산과 구수산의 수려한 산수와 서해안의 바다가 절경을 이루며, 넓은 갯벌과 농토를 이용하여 수산업과 농업이 성행하는 지역이다. 특히 원불교에서는 5만평에 달하는 정관평과 성지 일대에 유기농 등 생태농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은 홍농지역에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어서 방사선 유출 우려가 있고, 전력을 송출하는 고압 송전선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먹거리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항존하고 있으며, 청장년들이 영광유입이 쉽지 않다. 이에 1980년대부터 추구해온 탈핵운동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원전의 방사선 유출을 막고, 원전 대신 자연을 이용한 풍력이나 햇빛 발전소와 같은 청정한 대체 에너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탈핵운동의 참여는 원불교의 생명평화 정신을 실현하는 제생의세의 실현이며, 생태농업에 기반한 농촌교화를 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본고에서 검토한 영광지역에서의 원불교의 역할과 향후 과제는 3개월에 걸친 짧은 조사와 원불교 교당 및 복지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추가적인 조사와 본고와 관련된 학술토론을 통해 기존의 분석내용이나 향후 과제에 대해서 수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제생의세를 표방하고 있는 원불교에서 성지가 있는 영광지역을 낙원세상으로 바꾸는 것이 원불교의 교화의 첩경이자 국가와 인류세계에 공헌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1. 자료

1) 원전자료

『불교정전(佛敎正典)』, 『대종경선외록(大宗經選外錄)』

『월말통신』 제20호(1929.10)

『회보』 제26호(1936년 7월)

2) 통계자료

통계청, 「2020 농림어업 총조사」, 2020.12.

원불교교화훈련부, 「원기106년 교화훈련부통계」 2022.1.

영광군청(<https://www.yeonggwang.go.kr/main/>)/영광소개/인구현황, 「2022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수 현황」(2022.4.5)

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https://yged.jne.go.kr/>)/기관소개/학교안내(2022.4.7).

성지송학중학교(<https://sjsh.ms.jne.kr/>)/학교현황(2022.5.1)

3) 영광교구 내 교육 및 복지 자료

「영산성지공동체생태환경분과보고」(2005.6.14, 영산교당 김선명 교무)

「길룡리 마을공동체 예산안」(2006.3.28, 영산교당 김선명 교무)

「길룡리 마을공동체 어떻게 이룰것인가」(2006.11.20, 영산교당 김선명 교무)

「행복한 아이들의 꿈터」(초록디딤돌 지역아동센터 소식지 14호, 영광읍, 2020.12.
31.)

『2022년 원광운영요람』(영광원광어린이집 이애영시설장, 2022.4.26)

「2022년 3월 업무보고」(영광노인복지센터 정종복센터장, 2022.4.26)

「2022 느티나무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2022.4.26, 신흥교당 허원용 교무)

「2022년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 사업계획서」(2022.4.27, 설승태 교무)

「2022년 민들레세상 지역아동센터 교정지도」(2022.4.27, 설승태 교무)

2. 단행본

원불교교화부/편저 정천경, 『원불교와 농촌교화-원불교 농촌교화 자료집』, 원광사, 1997.

영광교당 72년사 편찬위원회편, 『세계에 길이 빛날 영광』, 월간원광사, 2006.

원불교100년 기념성업회, 『원불교100년총람』 3,4,8권, 원불교출판사, 2017.

영광군/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 종합정비계획』, 2020.12.

3. 논문

이공주(李共珠), 「사은(四恩)과 사요(四要)」(『원광』 23호, 1958년(원기43년) 7월).

심대섭, 「원불교의 사회복지이념」, 『원불교사상』 9, 1986.

서 윤, 「원불교와 사회복지」, 『종교문화학보』 4,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07.

오세영, 『원불교 사회복지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사회복지삼동회, 2011.

오세영, 자원봉사와 무아봉공의 사상적 접점,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4,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오세영, 구형선, 「봉공회원들이 체험한 봉공활동의 의미 탐색」,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8,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오세영, 「원불교 사회복지 이념의 재조명」, 『신종교연구』 32, 2015.

정향옥, 「지역사회 종교활동의 역사와 전망연구 - 장흥지역 신종교(동학, 천도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80, 한국종교학회, 2020.

이원식, 「봉공의 역사와 의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8, 원광대원불교사상연구원, 2021.

김봉곤, 「원불교의 政敎同心과 시민적 덕성」,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84,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0.

Abstract

Roles of Won Buddhism in Community

- Focusing on Yeonggwang Region -

Kim, Bong-gon

(Wonkwang Univ. Won Buddhism Thought Researcher)

Since Sotaesan Park Jung-Bin claimed to advocate the adaptation to time, habituation, and popularization of Buddhism in the 'Joseon Buddhism Hyeoksinron' of 1935, Won Buddhism has gone through the repeated transition in the practical contents of its doctrines according to changes in time and people's lifestyle. When Won Buddhism was founded in 1924, it already claimed to advocate the religion for proletarians by reclaiming land at day time to take it as the root of life and also studying the truth of Buddhism at night to take it as the root of knowledge. For this reason, there were many temples of Won Buddhism in rural areas as the agriculture as the primary industry was the center of Korean indust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or till the 1950s.

However, when the Korean government executed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to escape from the poverty after the 1960s, the commerce and industry were developed, and the great rural population was moved to cities. The industries were developed from the light industry such as food, textile, clothing, and paper manufacturing to the heavy industry such as petroleum, iron, machine, and automobile, and then to computer, semiconductor, info-communication, service industry, and high-tech industry since the 1990s. According to such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the rural population was leaked out to cities, the rural population has been decreased to the level of 5% of whole population. Also, in rural areas, the aged population in 65 is 50% in the population ratio. Following this trend, the urban temples of Won Buddhism are overwhelmingly increasing compared to rural temples.

However, the rural area is the source of food production directly connected to survival, so the government cannot give up on agriculture. Because Won Buddhism also claims for everyone to live in the paradise by diagnosing and curing all the illnesses, it cannot give up on the reformation of rural areas that are currently facing difficulties. Keeping that in mind, this thesis analyzed how the concept of major doctrines of Won Buddhism such as 'Saeunsayo(四恩四要)' and 'Muabonggong(無我奉公)' is connected to the construction of paradise and how the roles of Won Buddhism are

shown in community targeting Yeonggwang region. Through this, the rural areas also need to promote the recovery of healthy spirituality through local children's center or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and also to realize the life & peace movement such as organic or nuclear-free movement. For this,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long-service and a high sense of duty of workers in charge should be supported.

Key words : Won Buddhism, Yeonggwang Region, paradise 'Saeunsayo(四恩四要)' and 'Muabonggong(無我奉公)', the recovery of healthy spirituality, local children's center,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nuclear-free movement, the life & peace movement

토론문

「지역공동체에서의 원불교의 역할 — 영광지역을 중심으로」를 읽고

권 동 우
영산선학대학교

본고에서는 한국사회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히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원불교 교화도 과거의 농촌 교화보다는 도시 교화를 중심으로 하는 교화의 구조가 변화해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교화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원불교 농촌교화의 실제 사례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라남도 영광지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원불교가 창립 초기부터 이어 온 교화의 이념과 현재의 교화조직을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현재 영광지역의 인구분포 및 교당 분포상황과 교화의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영광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원불교 교화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 분석을 행하였다.

근래까지 연구 동향을 살펴볼 때 원불교의 ‘교화’의 문제에 관한 연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원불교의 ‘농촌교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전문적 수준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문제의식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으며, 이렇게 지역사회의 문제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 원불교 지역교화의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지역 교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자료 조사를 행하고 또 이렇게 귀중한 논고로 정리해 준 발표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본고는 전반적으로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를 지적할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논문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몇 가지의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논평자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 1) 발표자께서는 머리말에서 “원불교는 1935년 소태산 박중빈이 ‘조선불교혁신론’에서 불교의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를 표방한 이후, 시대 상황과 민중들의 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교리의 실천내용이 변천을 거듭하였다. 원불교는 1924년 창건 당시 이미 낮에는 토지를 개척하여 생활의 근원을 삼고, 밤에는 불법의 진리를 연구하여 지식의 근원을 삼는다는 무산자의 종교를 표방하였다”라고 했다. 이러한 표현은 원불교가 1924년 창립 이후부터 낮에는 토지를 개척하고 밤에는 진리를 연구하는 생활 속 종교의 모습을 지켜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소태산은 1916년 대각 이후 저축조합을 통해 근검절약, 금주단연, 보은미 저축 등의 실천을 통해 자본금을 형성한 후 1918년부터 바다를 막아 논을 만드는 방언공사를 실시했다. 이때부터 소태산과 제자들은 낮에는 토지를 개척하고 밤에는 진리를 연구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순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2) 본고 2장 “원불교의 낙원세상 건설과 무아봉공”에서 발표자께서는 “원불교는 일원상의 낙원세상을 건설을 목표로 하며, 그 실천의 대법으로 사은사요(四恩四要)를 제시하고 있다. 1929년 10월 『월말통신』에 따르면 소태산 박중빈이 대소유무와 시비이해를 해부하여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피은(被恩), 보은(報恩), 배은(背恩)의 법을 알려 주었고, 사요의 대법을 하교(下敎)하니 인도정역에 입각한 도덕풍이 불고, 대아(大我)의 본연의 세계를 찾게 되었다고 하였다. 사요의 대법은 부부권리동일(夫婦權利同一), 지우차별(智愚差別), 무자녀 타자녀교양(無子女 他子女敎養), 무자력자 보호(無自力者保護)이다.”라고 했다.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을 위해 1929년 10월 『월말통신』을 인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소태산이 사은사요 삼학팔조의 교강(敎綱)을 발표한 것은 1920년(원기5)인데 위의 표현에서는 자칫 1929년 소태산이 사은사요를 발표한 것처럼 이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전후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3) 발표자께서는 머리말에서 “본고에서는 원불교의 주요 교리인 사은사요와 무아봉공의 개념이 어떻게 낙원세상 건설로 연결되며, 지역 공동체에서 원불교의 역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영광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원불교의 대사회적 실천이 교법에 근원해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정작 논지가 전개되는 가운데 영광지역의 교화가 ‘사은사요’ 특히 ‘사요’의 실천의 측면에

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평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발표자께서는 구타원 이공주의 표현을 통해 소태산이 ‘사요’의 실천으로 ‘인류평등·지식평등·교육평등·생활평등’을 이루는데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렇다면 영광지역에서 이뤄지는 교화활동 특히 원전반대운동이나 지역 아동센터 등의 활동이 이러한 사요의 ‘평등’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교화라고 볼 수 있을까? 전체적인 논지의 방향이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교리의 정신성에 기반하는 귀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논고를 통해 볼 때 발표자의 문제의식이 최종적인 귀결에서는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며, 나아가 발표자께서는 영광지역의 원불교 교화가 사요의 실천적 측면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또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발표자께서는 결론 부분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농촌교화를 해야 하는가. 요점은 지역 사회에서 원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증대시켜 나가면서 교화를 병행하자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는 머리말에서 제시했던 발표자의 문제의식의 결론으로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